

글로벌 채권 아우르기(9월호) : 모두가 아는 인하



Fixed Income Strategist

박민영

☎ (02) 3772-2638

✉ mypark@shinhan.com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채권시장 강세

8월 Global AGG(USD Hedged)는 MTD 1.19% 상승했다(8/30 기준). 4개월 연속 강세이다. 경기 둔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압박 등이 주요 동인이었다. 7월 미국 고용보고서 쇼크 이후 경기 침체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다. 과거 실업률 상승 패턴이 주목받으며 둔화 가속 모멘텀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고용에 초점을 맞출 것을 암시했다. 단기간 고용 지표들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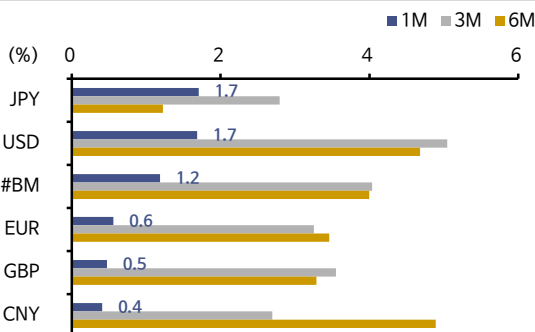
미국 통화정책 전환 전망은 유로존, 영국 등 인하 사이클이 이미 시작된 지역에 금리 하락 모멘텀을 더했다. 다만 영국은 8월말 스태머 총리 발언으로 불거진 국채 발행 확대 우려로, 유로존은 이미 낮은 금리 레벨에 추가 하력 여력 제한으로 강세폭이 제한됐다. 오히려 인상 사이클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이 금융시장 혼란으로 유발된 금리 되돌림이 나타나며 유럽권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미 선반영한 9월 미국 인하. 적정 레벨을 고민할 시기

9월에는 모두 예상하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대기하고 있다. 추가 강세를 기대하기보다 과도한 프라이싱의 조정 가능성에 유의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단기 국가별 선호도는 '미국(USD) > 영국(GBP) > 유로존(EUR) > 일본(JPY)'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중기 호재이나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 견조한 지표에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SEP에서 시장 기대보다 완만한 기준금리 인하 경로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은 10월 예산안 발표 이전까지 국채 발행 우려가 지속되며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 유로존은 낮은 금리 레벨에 투자 매력이 낮다. 일본은 속도는 둔화했으나 내수 개선으로 인상 스탠스를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Global AGG 통화별 성과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단기 통화별 선호도 Table

구분	-	선호도		+
USD				
EUR				
GBP				
JPY				

자료: 신한투자증권

USD: 되돌아 볼 시간

잭슨홀 미팅 이후 더 중요해진 고용 보고서

8월 미국 국채 금리는 2년물 -36.4bp, 10년물 -17.0bp 움직였다. 7월 고용보고서 쇼크 이후 금리 하락 쏠림이 심화됐다. ‘실업률 3개월 이동평균이 최근 12개월 실업률 최저점보다 0.5%p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가 유발됐다’라는 삼의 법칙이 주목받으며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삼 조차 자연 법칙이 아니라 경험적인 규칙이라 선을 그으며 과도한 몰입을 경계했으나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8월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도비시한 스탠스까지 확인하며 기준금리 인하 시작 기대감이 팽배하다.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고용 둔화를 경계하는 모습이 부각됐다. 8월 고용보고서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셀온(Buy the rumor, Sell the news) 심리 경계할 때

9월 인하는 기정사실이다. 인하폭이 문제인데 이는 8월 고용보고서가 결정할 것이다. 7월 신규 고용자수를 섹터별로 나눠보면 IT, 금융, 정부 관련 섹터의 신규 고용이 부진했다. 기업의 고용은 실적에서 시작된다. IT, 금융의 실적은 기타 섹터 대비 견조하다. 둔화세 지속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련 섹터의 경우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쉽게 무너지기 어려워 보인다. 9월 FOMC에서 25bp 인하라면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며 일부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다.

대선 이슈가 다시 불거질 예정이다. 9월 10일 2차 TV 대선토론회가 진행된다. 민주당 후보가 해리스로 교체된 이후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며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다만 두 후보의 대면 토론은 부재했다. 토론회 내용에 따라 양상은 변화될 수 있다. 각 후보의 재정지출 정책이 부각될 경우 중장기 인플레이션 또는 국채 발행 확대 우려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금리는 4개월 연속 하락하며 단기적으로 약재에 민감해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에 유의해야겠다.

9월 미국 국채 투자전략

항목	9월 전망	채권 강도
통화정책	-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보다 명확한 인하 가이드라인 제시 - 고용보다 물가가 중요함을 강조. 인하폭은 8월 고용 보고서에 좌우 - 9월 FOMC에서 내년 점도표 변화 주목. 100bp 이하 하향 조정 예상	+1
펀더멘털	- 물가 지표의 경우 디스인플레이션 기대 유효 - 고용 지표의 중요성 강화. 신규 고용자수는 점진적으로 둔화 예상 - 다만 고용 급랭 가능성은 제한적. 고용의 기반이 되는 기업 실적 견조	-1
내부이슈	- 9월 10일, 트럼프와 해리스의 TV토론회 진행 - 컨벤션 효과로 해리스의 돌풍 지속 여부 주목 - 6월 TV 토론회처럼 트럼프의 우위가 부각될 시 금리 상방 우려 확산 가능	-1
외부이슈	-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 경계. 파생적으로 미국 경기 훼손 가능	+1
수급	- 재무부 현금 계정 7,500억달러 내외 유지. 국채 발행 확대 필요성 낮음 - TV토론회 이후 각 후보의 정책이 부각될 시 국채 발행 확대 우려 심화 예상	-1

자료: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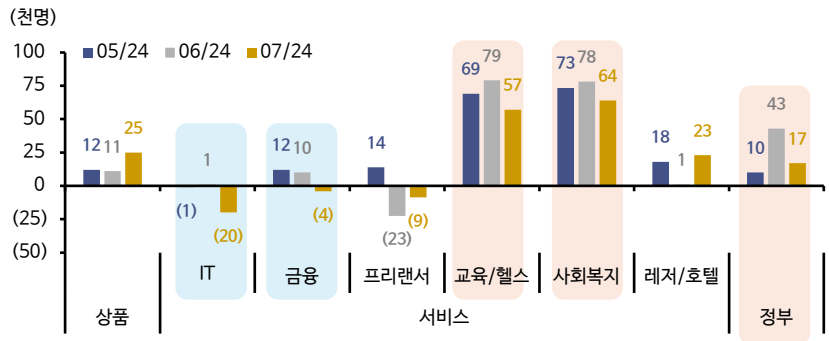
주: -2~+2 범위로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 약세, 플러스 값이 클수록 강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추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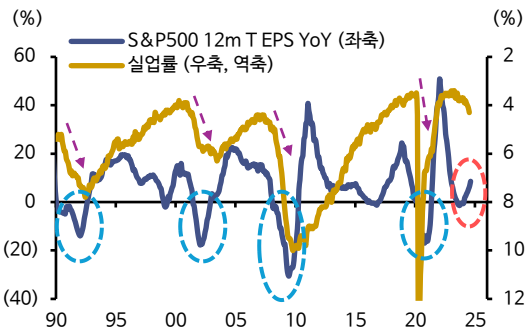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섹터별 신규고용자수 증감: IT & 금융 섹터 부진, 정부 관련 일자리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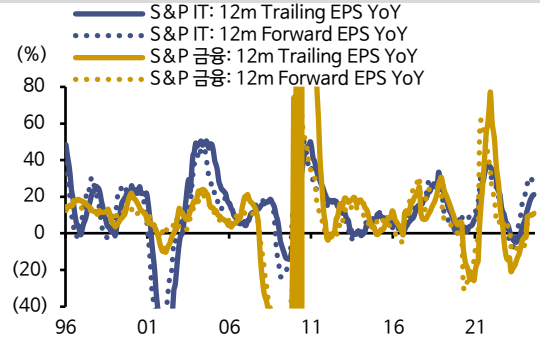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기업 실적 고려 시, 실업률 상승 가속 가능성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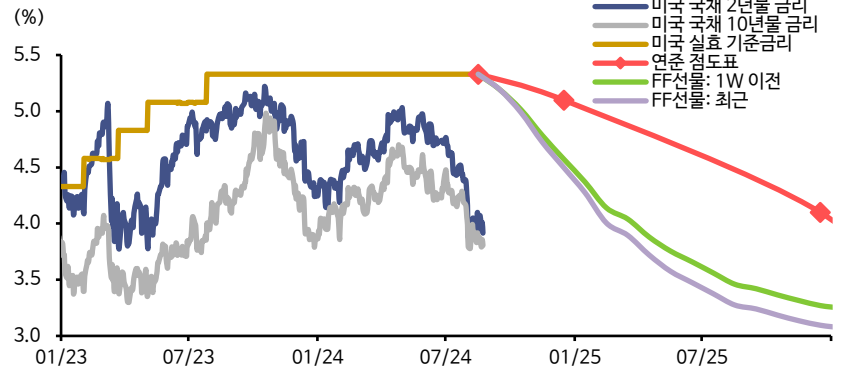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IT & 금융 섹터의 견조한 실적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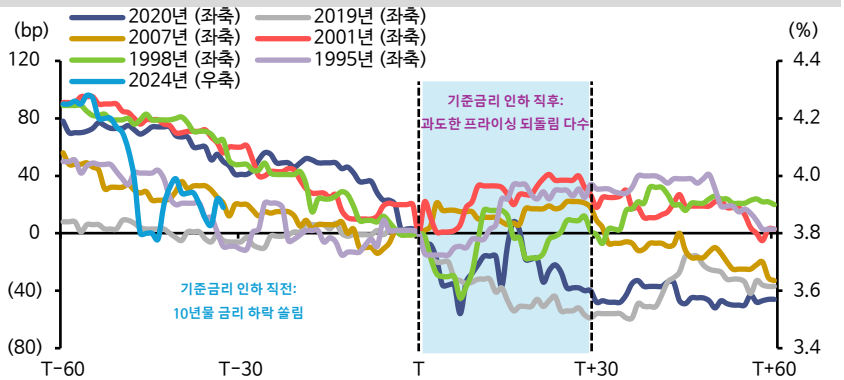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6월 점도표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과도한 인하 프라이싱 반영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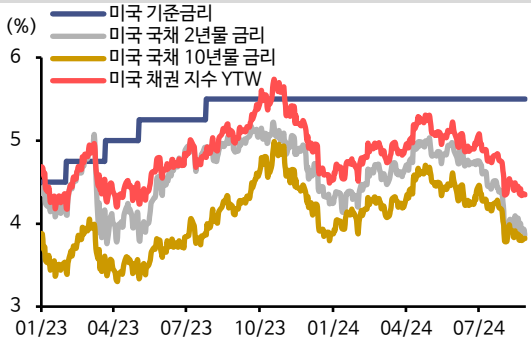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90년대 이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 전후 미국 10년물 금리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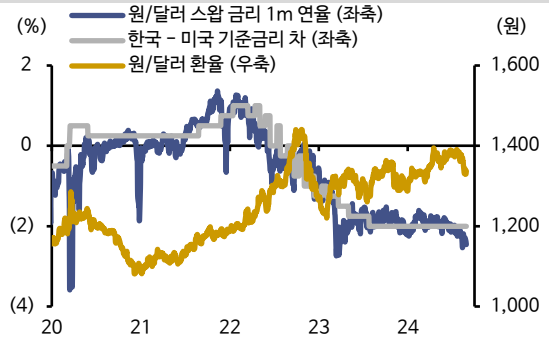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미국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원/달러 환율 및 스왑 금리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EUR: 비워진 밥상

유로존 내부 이슈보다 미국, 중국 외풍에 흔들림

8월 독일 국채 금리는 2년물 -17.4bp, 10년물 -3.0bp 움직였다. 하락 동력은 내부보다 외부 요인이 지배적이었다. 8월초부터 미국 시장금리 급락으로 유로존 국채 금리도 동반 하락했다.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까지 유로존 시장금리 하방 요인이다. 6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ECB는 9월에도 25bp 인하가 예상된다.

인하 사이클 속도 유지. 제한적인 시장금리 하락 여력

3가지 내용을 고려해볼 때 분기당 1회, 25bp 이상의 인하 사이클을 반영하기 어렵다. 1) 물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기준 2%중후반에 머무르고 있다. 연초 이후 2.5~3.0%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견조한 서비스 경기가 물가 하방을 제한하는 모습이다. 2% 목표 물가를 고려할 때 추가 공격적인 인하 필요성이 부재하다.

2) 실업률이 최저 수준이다. 미국, 영국 실업률은 현재 1년내 최저치 대비 +0.6%p이다. 반면 유로존은 경직적 고용시장 환경에 최저치 대비 +0.1%p에 그친다. 2분기 성장률까지 전분기대비 +0.3%로 시장예상치(+0.2%)를 상회했다.

3) 완화적 대출 환경이 조성됐다. 6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으로 유럽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완화됐다. 대출 수요 또한 확대가 관찰되고 있다. 경기, 금융 환경을 고려할 때 분기당 1회 이상의 공격적인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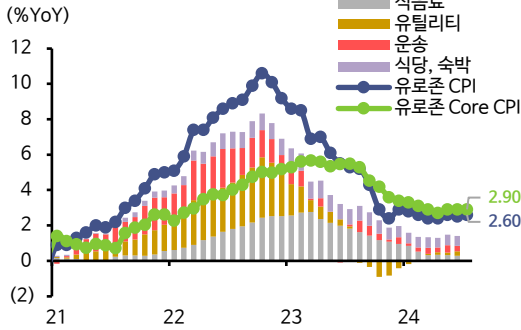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시장금리는 상대 열위에 있다. 중기 기준금리 전망에 기준이 되는 '18개월 이후 3개월물 금리'에 반영된 유로존 중기 기준금리 전망치는 2% 초반이다. 미국 대비 1%p 낮다. 2034년 유로존 잠재성장률 +0.7%(Bloomberg 추정치)에 목표물가 2%를 고려하면 장기물 적정 금리는 2%중후반이다. 같은 방식에서 미국, 영국의 현재 10년물 국채의 금리는 적정 금리 대비 0.4%p, 0.7%p 높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레벨에 하방 경직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8월 유로존 국채 투자전략

항목	8월 전망	채권 강도
통화정책	- 9월 ECB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 예상. 불확실성 낮음 - 다만 일부 매파 위원들은 인하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	0
펀더멘털	- 인플레이션 레벨 정체. CPI YoY +2%중후반 유지 -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 유지하고 있음을 유의	-2
내부이슈	- 9분기 독일 노조의 임금 협상 결과 주목. 노조는 7%를 상향 주장. 사측은 동결 주장. 양측 주장 강하게 유지하고 있기에 상당기간 소요 예상	0
외부이슈	-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 구체화	+1
수급	- 우파 선전 이후 NGEU 발행 억제될지 주목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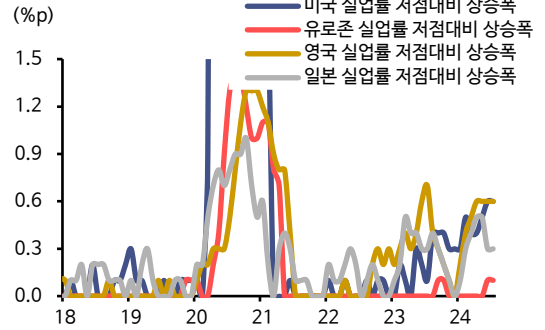
자료: 신한금융투자 / 주: -2~+2 범위로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 약세, 플러스 값이 클수록 강세

유로존 물가 상승률 2%중후반에서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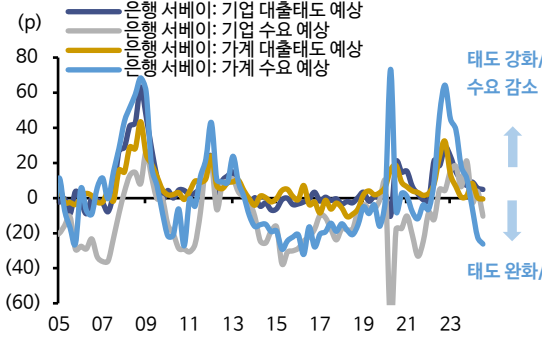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유로존 실업률 최저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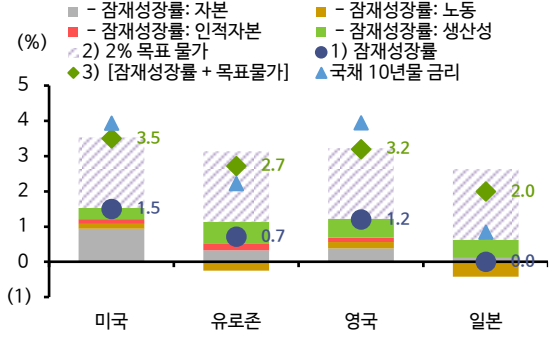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기업, 가게 대출 태도 및 수요는 개선



자료: CEIC,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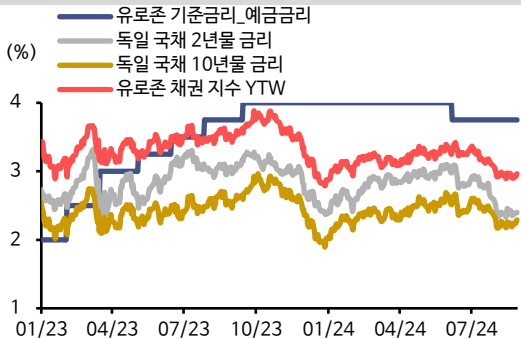
성장률과 물가 고려 시, 유로존 채권는 상대 열위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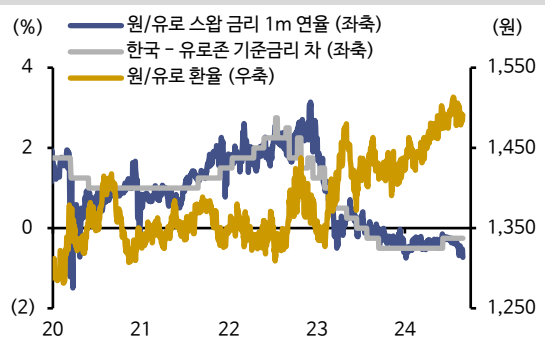
주: 잠재성장률은 Bloomberg 산출 기준, 2034년 추정치

유로존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원/유로 환율 및 스왑 금리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GBP: 열쇠는 다시 재정정책으로

영국 스타머 총리 한마디에 뒤바뀐 전세

8월 영국 국채 금리는 2년물 +30.3bp, 10년물 +4.8bp 움직였다. 8월초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5.25%에서 5.00%로 25bp 인하되며 영국의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다. 7월 CPI는 YoY +2.2%, MoM -0.2%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시장 둔화가 확인된 것이 인하의 주된 이유였다. 동결 전망이 상당했기에 예상보다 빠른시점의 인하는 시장금리 하락폭을 키웠다.

다만 월말 정치 및 재정정책 이슈로 금리 모멘텀이 한번에 훼손됐다. 26일 스타머 영국 총리는 10월 예산안에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발표했다. 7월 총리 임명 당시에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증세가 필요 없음을 강조했으나 한 달만에 스탠스가 바꿨다. 자본 소득세, 상속세 등 일부 증세가 단행되더라도 국채 발행량 또한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금리 급등을 유발했다.

통화정책, 펀더멘탈은 금리 하락을 지지하나 10월까지 정치가 키를 잡음

금리 하락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용 시장은 둔화가 확인된다. 6월 신규 고용 데이터 상 전일제 일자리 증가폭은 둔화됐다. 7월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3.5만명으로 급등했다. 1990년 이후 해당 지표가 10만명을 상회한 사례는 단 3번 뿐이다. 역사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급등 이후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패턴이 확인되는 만큼 고용 냉각의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임금 상승률 둔화가 가계 구매력 약화로 연결돼 성장 모멘텀은 둔화될 전망이다. 9월 동결에도 소비시한 BoE 스탠스가 기대된다. 연내 추가 인하 기대 여전히 유효하다.

우호적인 통화정책, 펀더멘탈 환경이나 10월까지 재정정책, 수급 이슈가 금리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스타머 총리의 증세 필요성 언급은 암묵적으로 국채 발행 확대로 연결된다. 구체적 내용은 10월 예산안 발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총리 및 정부 관련 재정 관련 발언들이 시장금리 변동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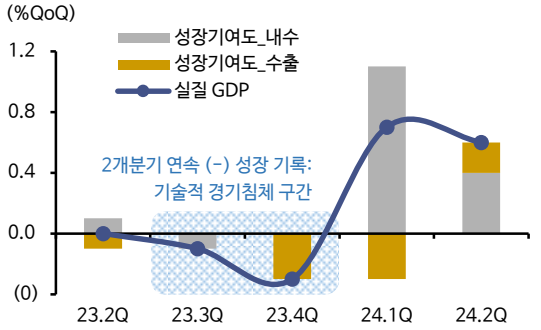
9월 영국 국채 투자전략

항목	9월 전망	채권 강도
통화정책	- 9월 동결, 10월 추가 인하 전망. 인하 사이클 지속 기대감 예상 - 높은 금리 레벨 측면에서 통화정책 대응 여력 풍부함을 강조할 것	+1
펀더멘탈	- 성장률 반등하며 침체 우려에서 벗어나고 있음 - 다만 고용시장 약화 확인되며 정책 지원 필요성 제기 - 7월 급증한 실업수당 청구건수 주목. 고용시장 둔화 지속 예상	+1
내부이슈	- 영국 스타머 총리의 증세 가능성은 재정정책 신뢰감 훼손으로 연결 - 10월 예산안 발표 이전까지 불확실성 지속될 수 있음을 경계	-2
외부이슈	- 유로존, 미국 등 기준금리 인하 전망 강화는 긍정적	+1
수급	- 증세 불가피함은 암묵적으로 국채 발행 확대 우려로 연결	-1

자료: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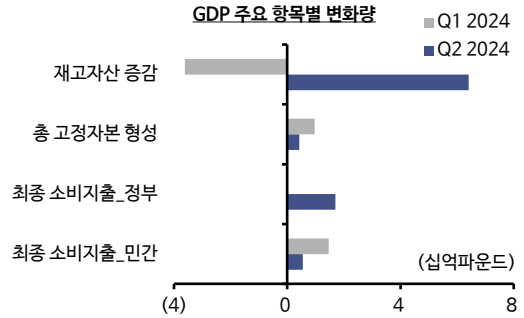
주: -2~+2 범위로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 약세, 플러스 값이 클수록 강세

영국 경제성장률 추이: 기술적 경기침체 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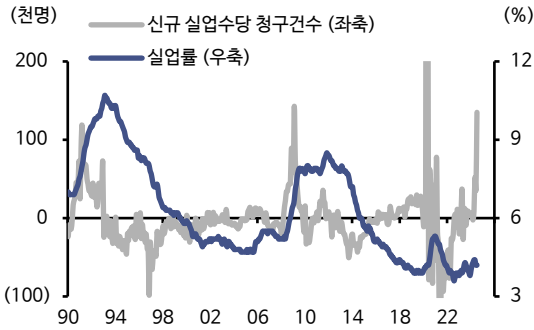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재고 확대와 부진한 기업투자: 성장 모멘텀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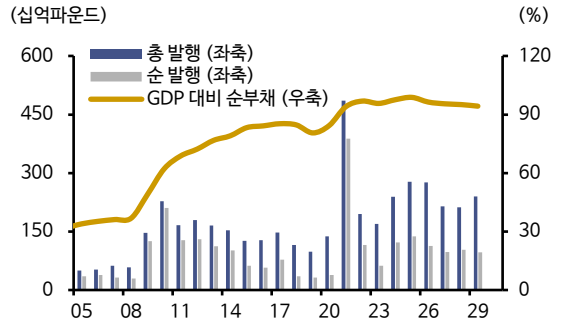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7월 실업수당 청구건수 급증: 고용지표 악화 신호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영국 재정 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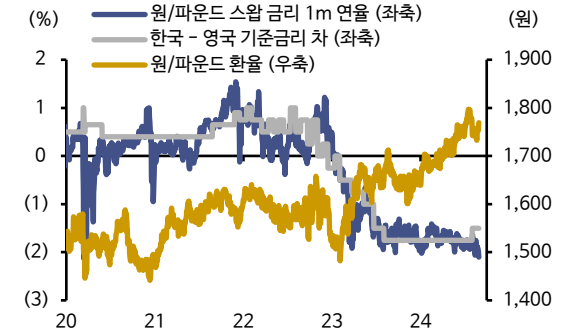
자료: CEIC, 신한투자증권

영국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원/파운드 환율 및 스왑 금리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JPY: 주춤했으나 갈 길을 가겠다는 일본은행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희망회로

7월 일본 국채 금리는 2년물 -8.3bp, 10년물 -14.9bp 움직였다. 8월 일본 금융 시장은 극단적인 변동성이 확인된다. 7월말 BoJ에서 기준금리 15bp 인상 및 매 파적 스탠스를 나타냈다. 이후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및 인하 전망이 강화되며 엔/달러 급락이 유발됐다. 연쇄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불거지며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을 만들었다. 이후 BoJ의 후퇴로 빠른 안정세를 되찾았다.

8월의 혼란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는 늦춰졌으나 방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우에다 BoJ 총재는 경기, 물가 경로가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통화정책 정상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7월 BoJ 드러냈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의미이다. 지표들도 이를 지지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2.8%이다. 상반기 춘투에서 임금 협상 결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7월 실질 임금 상승률이 전년대비 +1.1%까지 반등했다. 서비스 PMI가 50p를 상회하며 확장 국면에 진입한 점도 긍정적이다.

9월말 일본 자민당 선거 주목. 새총리와 통화정책 간의 관계 형성 주목

주요 이벤트로 9월말 예정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주목해야겠다. 사실상 일본 총리 선거이다.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는데 일본 국회는 여당이 참의원, 중의원 모두 과반을 장악하고 있다. 총리 선출에 따라 통화정책 영향에 점검해야겠다.

유력 후보는 4명으로 좁혀진다. 지지율 1위 신지로(22.4%), 2위 시게루(21.6%)가 당선될 경우 통화정책 독립성을 지지하기에 방향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4위의 다로(7.7%)도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3위 사나에(10.8%)가 당선될 경우 통화정책 방향의 급전환이 예상된다. 포스트 아베로 인식되며 초완화적 통화정책을 주장한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사나에 지지율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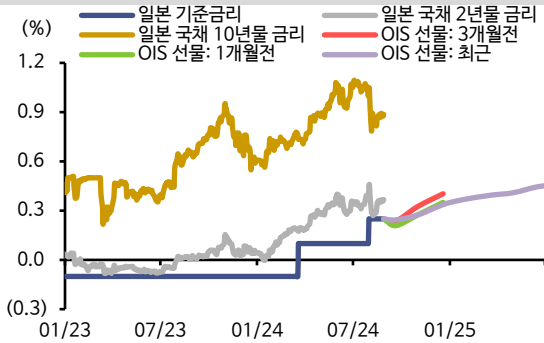
9월 일본 국채 투자전략

항목	9월 전망	채권 강도
통화정책	- 7월말 BoJ 회의 이후 시장 혼란 유발 - 매파적 스탠스 후퇴했으나 여전히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유지	-1
펀더멘털	- 실질 임금 가파르게 상승하며 내수 경기 회복 기대 강화 - 여전히 성장을 전망치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서베이 지표 회복 확인	-1
내부이슈	- 9월말 자민당 총재 선거 주목. 기본 시나리오는 기존 기조 유지 - 다만 지지율 3위의 사나에 총재 선전 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	0
외부이슈	- 예상보다 부진한 글로벌 경기 흐름에 인상 필요성 약화	+1
수급	- 동일	0

자료: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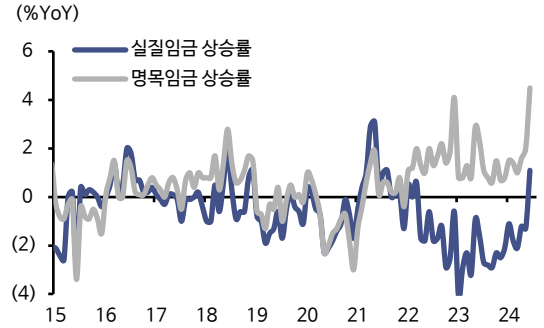
주: -2~+2 범위로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 약세, 플러스 값이 클수록 강세

일본 기준금리 경로: 연말 1차례 추가 인상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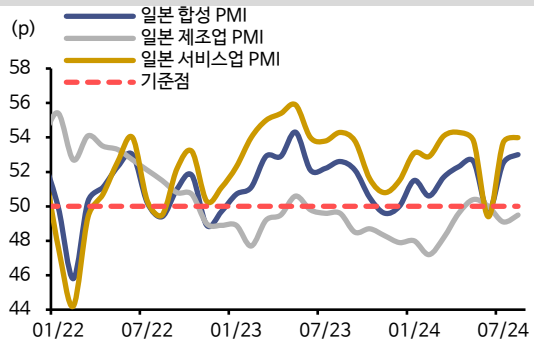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일본 실질임금 상승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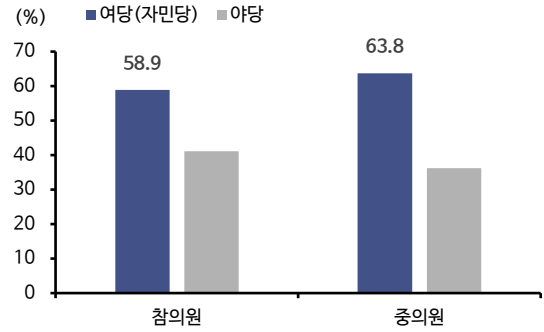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서비스 경기 중심으로 확장 국면에 재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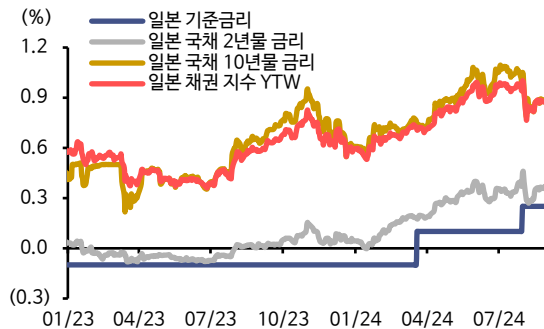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일본 국회 여당/야당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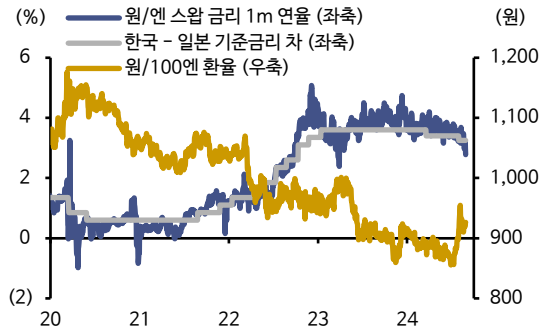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일본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원/엔 환율 및 스왑 금리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CNY & 기타: 약달러 수혜 지속 여부가 관건

중국, 7월 LPR 인하 이후 관망 장세

8월 중국 국채 금리는 2년물 +1.5bp, 10년물 +2.8bp 움직였다. 7월 LPR 10bp 인하 이후 효과를 관찰하는 모습이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금리 하방 요인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다. 소매판매를 제외하고 산업생산, 부동산, 인프라 등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기준 17개월째 +1%미만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부진한 경기 속 완화적 통화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금리는 보험권에서 완만한 하락 지속을 예상한다. 경기 부진으로 완화적인 스탠스가 이어지겠지만 시장금리 풀림 현상에 대해 정부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과도한 저금리 환경에서 불거질 수 있는 신용 리스크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기타 신흥국, 약달러 환경의 속도 조절 경계

8월 EMBI+ Spread는 -10.63bp, 신흥국 통화지수는 -0.09% 움직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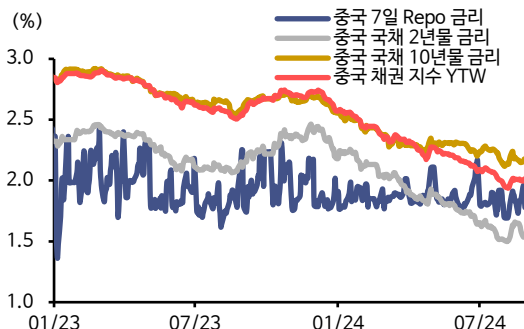
아시아 EM: 신흥국 통화의 약달러 수혜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금리 하락까지 관찰된다. 중화권 영향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미주 EM: 국가별 차별화 흐름이 확인된다. 상대적으로 기타 EM 대비 강달러 수혜 정도가 약하다. 좌파 정권 장악 이후 확장 재정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멕시코 폐소는 약달러 환경에서도 약세를 보였다. 고금리 국가 다수이기에 시장 금리는 하락폭은 크게 나타나지만 글로벌 채권시장 되돌림에서 취약하다는 판단이다.

유럽 EM: 달러 약세 흐름 속 영국,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가 반영되며 통화 강세가 지속됐다. 시장금리는 글로벌 채권시장 강세에 동조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기대감도 일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연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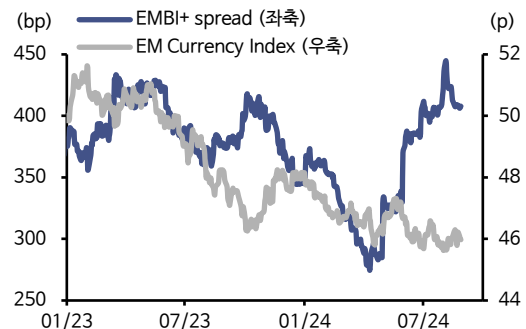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 주요국 시장금리가 이미 낮게 형성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고금리 신흥국 투자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다. 통화의 경우 9월 한정하여 쉬어가는 구간이 예상되나 방향성은 약달러 수혜가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단기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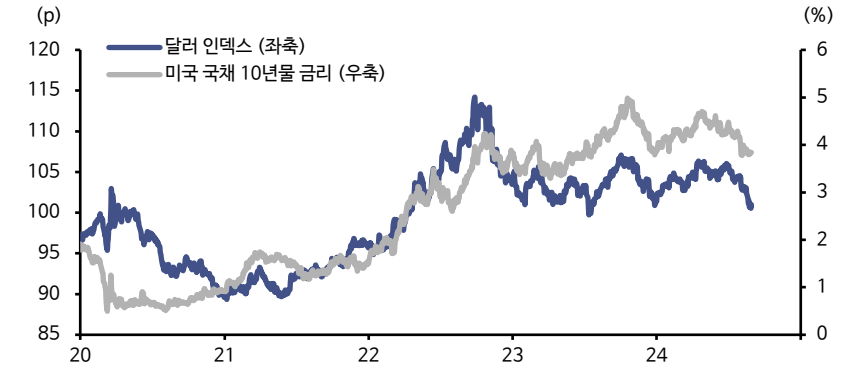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신흥국 금리 스프레드 및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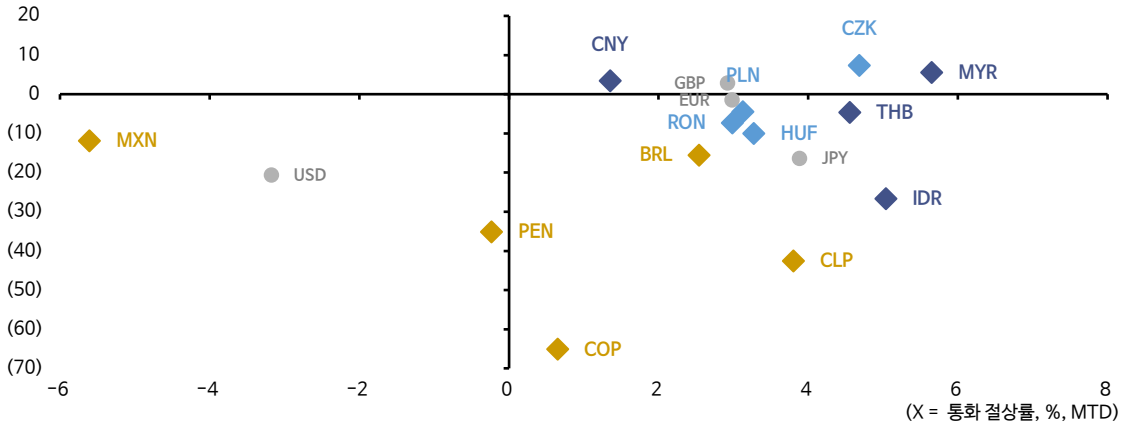
미국 금리 방향성에 맞춰 움직인 달러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신용국 국채 금리 및 환율 MTD 변동폭

(Y = 10년물 금리 변동폭, bp, M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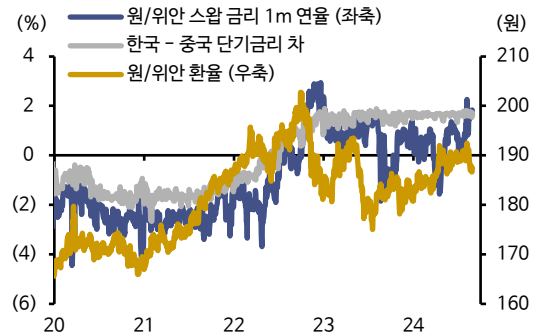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 주: 파란 - 아시아EM, 노랑 - 미주EM, 빨간 - 유럽EM

브라질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원/위안 환율 및 스왑 금리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민영).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